우리나라의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은 프레이&오스본에서 연구한 미국의 47%에 비해서 10% 포인트가 낮은 은 미국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0%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과 제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났지만, 나머지 산업에서는

가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미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과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을

그림5. 한국과 미국 산업별 고위험군 일자리 비중 격차

|  |  |  |
| --- | --- | --- |
| **<박스> 서비스업에서 자동화가 벌어진다면?**  압축적으로 산업화 과정을 거친 우리나라는 산업별 일자리 비중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서도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해 왔다. 1960년대 700만명 이었던 전체 근로자수는 지난해 2670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하였다. 농업의 종사자 수는 1976년 551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 128만명까지 감소하였다.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63%에서 지난해에는 4.8%까지 하락하였다. 2차 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과 광업의 일자리는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1991년 522만명을 기점으로 하락한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과 광업 일자리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90만명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 제조업 경기 호조로 지난해에는 450만명까지 회복하였으나,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수준이었던 1988년 29%에서 지난해에 17%까지 하락하였다.   |  |  | | --- | --- | |  |  |   이렇게 1차 산업과 2차 산업에서 감소한 일자리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 증가로 만회해 왔다. 서비스업 일자리는 1963년 214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28%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에는 2090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78%로 증가하였다. 반면, 농업, 광업, 제조업의 취업자 수와 비중은 최고점에서 하락한 이후에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앞으로는 서비스업에서도 자동화와 교역의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발전에 따라 고용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왔던 서비스업에서 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와 해외로의 일자리 유출에 대응이 향후에는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앞에서 살펴본 3대 리스크 업종의 종사자 교육수준은 고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졸 종사자의 비중은 전체 산업 기준으로 35%인데, 도소매업(41%), 제조업(44%), 숙박 및 음식업(44%) 등은 모두 평균을 상회한다. 반면, 대졸자 비중의 경우 전체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산업 모두 평균에 못 미친다. 석사 이상의 경우에도 전산업 평균이 석사 4.3%, 박사 1.1%인데 반해서 이들 3대 업종의 평균은 각각 1.7%, 0.2%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스매치 문제

<3대 리스크 업종의 교육수준별 종사자 비중>

